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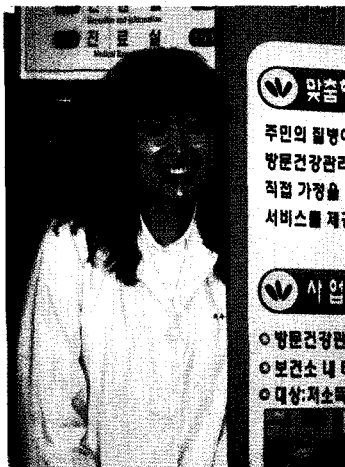
부산 서구의 결핵관리 우리가 책임집니다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PPM 사업이 10개월 째에 접어들었다. 민간부문의 결핵관리를 공공으로 끌어들이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지난 2월 출범한 PPM 사업. 1년이 가까워오면서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PPM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선봉에는 사례관리요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시 서구보건소 사례관리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수정 씨와 결핵실 정순옥 선생님을 만나 서구보건소의 현황과 PPM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보건소를 방문해 보면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결핵환자의 현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 서구보건소 결핵실을 이끄는 3인방.
정순옥 선생님, 김종득 선생님, 최수정 사례관리요원



◀ PPM사업의 초창기라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한다는 최수정 씨.

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서구의 경우 부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결핵환자도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으로 1년 등록환자가 100명 이상 된다고 한다. 결핵실 정순옥 선생님은 결핵업무를 10년 정도 맡아왔는데, 최근 소집단 발병 등으로 관리사항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다른 업무보다 애착을 갖고 일해왔다고 한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PPM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구보건소 사례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수정 씨는 병원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 보건소간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사업 초기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혀가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7개월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이력이 붙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현재 그가 관리하는 환자는 275명으로 이중 73% 정도가 이 사업에 동의해줘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2주에 한 번 정도 추구관리를 위한 전화를 하고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SMS 서비스를 이용해 환자들의 복약 등을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복약을 독려하고 있다. 타 구의 사례관리요원들과 교류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속상했던 일, 답답했던 일 등을 털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최수정 씨.

우리나라에서 하루 빨리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전방에 투입된 사례관리요원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나아가 PPM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핵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